

GS건설, 'GS이니마' 앞세워 친환경 디지털 신사업 확대



1 GS이니마가 스페인에서 2018년 준공한 라가레스 수처리 시설 2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

GS건설이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수처리 사업은 수질의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거쳐 식수나 공업·농업용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GS건설이 추진하는 신사업은 수주와 단순 시공 중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넘어 개발과 투자, 운영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친환경 디지털 회사로 성장하는 전략을 담았다.

사업은 2012년 인수한 GS이니마를 주된 축으로 진행한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RO(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글로벌 기업이다.

GS이니마는 최근 베트남 PMV 지분 30%를 인수한 것을 비롯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오만 등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오만에서 알 구브라 3단계와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 발전사업(IWP)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규모가 총 2조5천여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GS이니마의 사업 구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 최고 유망 분야인 친환경 사업, 높은 잠재성장률, 사업 안정성의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GS이니마는 20년 이상 장기간 고정 가격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담수를 판매하거나 용수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EPC(설계·조달·시공)

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 O&M(운영 관리)이 포함돼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 확장성도 눈에 띈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 담수화 신재생 에너지 혁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020년 7월에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너지를 강화했다.

GS건설의 미래 비전은 친환경에 맞춰졌다. 친환경 공법의 프리패브(Prefab, 공장에서 부품 가공과 조립을 해 현장 설치하는 건축공법) 주택(모듈러 주택),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관련 사업에 광폭 행보를 보인다.

GS건설은 2020년 유럽 선진 모듈러 업체인 영국 엘리먼츠, 폴란드 단우드 2곳을 동시에 인수해 글로벌 주택건축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재활용 관련 사업에도 진출했다. GS건설 자회사 에네르마는 지난해 포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장기 성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사업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